

Music Therapy Students' Perception on the Music Therapy Education in Graduate Program

Park, Min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erception of current music therapy curriculum perceived by music therapy graduate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the program. A total of 100 students responded. The subject 'music therapy techniques'(23.2%) was identified as highly regarded topic as important subject matter. Respondents showed different levels of skills and confidence according to their previous major areas; music vs. non-music major. Regarding the clinical practicum, students in the higher level practicum showed higher competence; however the level of competence was decreased as they entered the internship. Also 'Counseling and psychology related subjects' was the most preferred subject (19.7%) and 'professionalism as a music therapist'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dicated by the respondents(51.8%). Overall, general information and perception regarding music therapy curriculum was described, and the results implies the importance and needs of future music therapy curriculum development.

[Keywords] Music therapy students, Music therapy graduate program, Music therapy skill, Professionalism

* Ewha Music Therapy Education Center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

박민경*

본 연구는 음악치료 교과과정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4개의 대학원의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음악치료기술(23.2%)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진학 전 학부전공이 음악전공인 학생들과 음악 외 전공인 학생들의 음악기술영역에 대한 역량 및 자신감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실습의 단계가 가장 높은 학생들의 임상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반면 인턴십 과정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심리학 관련 과목의 개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19.7%) ‘음악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51.8%). 이러한 결과들은 음악치료학과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음악치료 교과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 지식과 역량에 맞는 효율적인 교과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음악치료학과 학생들의 인식도, 음악치료 프로그램 효율성, 음악치료 기술, 전문성

I. 서론

음악치료가 전문영역으로 발전하면서 그 대상군이 장애아동(김동민, 2003; 김정란, 2005; 박지은, 2009; 주세진, 최신행, 남옥선, 2007; 최애나, 김명현, 최낙천, 2009)이나 정신과(김경숙, 1999) 등에서 벗어나, 사회복지기관(고지윤, 2005; 추주라, 2009), 비행청소년(한영희, 2001), 학교 내 학습부진아동(강노아, 2009)과 학교 부적응 아동(Chong, Kim & 2010), 고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여정윤, 2010; 전희란,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박미화, 2010)과 다문화가정의 아동(권윤주, 2009) 등 여러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음악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음악치료사의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7년 처음으로 음악치료사를 교육하는 석사과정 개설 이후, 여러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에 음악치료학과 과정이 개설되었으나, 같은 시기에 평생교육원과 사회교육원 등의 3개월 혹은 6개월의 교육이후 자격증을 발행하는 음악치료 단기과정도 우후죽순처럼 개설되기 시작하여, 단기과정을 이수한 음악치료사들이 음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김윤겸, 근간; 김현지, 2009; 김혜진, 2008). 음악치료사를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담당자들은, 단기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석사과정을 이수한 음악치료사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음악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고, 선입견과 다양한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치료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음악치료사의 자질, 전문성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추주라, 2009).

우수한 자질의 전문치료사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는 음악치료 교육기관은 음악치료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도 폭 넓은 교과과정으로 교육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정영주, 2001). 음악치료 교육과정이 제공된 지 약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지, 혹은 추가 되거나, 축소되어야 할 교과목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음악치료사들의 자기역량에 대한 평가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소속 음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을 적절하게 이수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음악치료영역과 임상

기초영역에는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인 데 반해 음악기초영역이 보통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혜진, 2010). 이 연구 결과로 보아, 교과과정 안에서 음악기초 영역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학원 내에 음악치료학과의 입학기준에 따르면 음악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구분 없이 선발되고 있으며, 교육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석사과정에서 동일한 음악치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음악기초 영역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음악치료학이 국내보다 약 50년 먼저 발달한 미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AMTA) 인증 음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악기 수업 중에는 기타 수업을 선호(16.3%)하며, 음악치료 기초 과목 중에서는 심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학 수업을 선호(56.9%)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악치료 교과목 외에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과목으로는 42.1%가 수화수업의 개설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13.5%의 학생들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2009). 미국 템플대학의 음악치료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은 역할을 바꿔가며 참여하는 방식의 모의세션 등의 경험적인 교육과정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이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고, 실제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urphy, 2007). 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 학생들은 교과과정 내에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교과목과 함께, 실질적인 임상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는 경험적인 교육과정 또한 필수적인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들은 음악적 기술과 치료적 기술 외에도 음악치료세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음악치료학과 인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현재 음악치료 교육과 경험 수준은 발전 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퍼바이저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과정과 교육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nguay, 2008). 이는 현재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수퍼비전을 원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AMTA 승인 대학의 수퍼바이저들과 인턴쉽 전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에 관한 인식과 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 수퍼바이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대상자들의 필요를 잘 진단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이었고,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인턴으로

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아내어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Knight,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적 교육에 관한 수퍼바이저들의 인식과 학생들의 인식이 다름과,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미국의 현실과는 달리, AMTA와 같은 단일화 된 협회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의 음악치료 교육기관은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상황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음악치료는 음악을 하는 사람과 임상을 하는 사람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음악과 질병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de L'Etoile, 2000). 이에 따라 교육과정도 이론적 배경에 대한 교육과정과 실습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음악치료사협회가 태동하며 한국 현실에 맞는 단일화 된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졸업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가 김혜진(2010)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재학생의 욕구 파악이 필요하여 진행되었다. 국내 현실에 적절히 적용 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음악치료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기술영역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는 어떠한가?
2. 치료기술영역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는 어떠한가?
3.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음악치료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되어있으며, 현재 음악치료 전공 전임 교원을 확보한 서울 소재의 4개 대학원(SM대, EH대, MJ대, SS대)을 선정하였으

며, 이중 음악치료전공생들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02부(회수율 68%)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답변을 한 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00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별 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SM대 20%, EH대 19%, MJ대 48%, SS대 13%를 차지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둘째, 음악기술영역에 대한 인식도, 셋째, 치료기술에 대한 인식도, 넷째,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첫 번째 영역은 성별, 연령의 인구사회학적 문항 2개와 진학 전 음악치료 강습 참여 여부, 학부 전공, 진학 전 직업 등 대학원 진학 전에 관한 문항 3개, 수강한 과목 수, 현재의 실습레벨과 학기, 실습했던 대상 군과 기관, 현재 직업에 관한 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치료 교과 과정이 음악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치료사의 필수적 임상자질인 음악적 기술과 임상적 기술은 단순한 음악적 정보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 음악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진단명, 치료의 역동, 치료적 관계를 강조하는 임상적 기초, 그리고 음악치료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와 능력을 포함한다(Bruscia, 2003). 본 설문지에는 음악기술 영역과 치료기술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음악기술영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현재 음악기술을 점검해 봄으로써, 음악기술영역에 관한 교과과정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하였다. 임상 안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음악기술을 토대로 하여 음악사 및 장르별 음악의 이해, 클라이언트의 음악선호도 인지능력, 반주 및 악기 연주 기술, 성악 기술, 작곡 및 편곡 기술, 전자악기 및 음악장비 사용기술, 동작 기술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총 17문항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세 번째 영역은 치료기술영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현재 치료기술을 점검해 봄으로써, 치료기술영역에 관한 교과과정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하였다. 임상 안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치료기술을 토대로 하여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이해, 치료원리와 기초, 치료적 관계, 치료계획, 치료실행, 문서기록 등에 관

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총 28문항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네 번째 영역은 음악치료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인식도를 점검해 봄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전문적 음악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음악치료전공 교과과정에 관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수강한 과목이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도움이 되는 수강과목, 도움이 되지 않는 수강과목, 개설희망과목, 학회나 협회 활동에 대한 의견, 음악치료사가 되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 희망하는 대상 군과 기관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한 모든 문항들은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도교수와 면담 후 추가점검이 이루어졌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내용	구성	문항
1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진학 전 음악치료 강습 참여 여부, 학부 전공, 진학 전 직업, 수강한 과목 수, 현재 실습레벨, 학기, 실습했던 대상군과 기관, 현재 직업	10문항
2	음악기술	음악사 및 장르별 음악의 이해, 클라이언트의 음악선호도 인지능력, 반주 및 악기 연주 기술, 성악 기술, 작곡 및 편곡 기술, 전자악기 및 음악장비 사용기술, 그룹 리딩 기술	17문항
3	치료기술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이해, 치료원리와 기초, 치료적 관계, 치료계획, 치료실행, 문서기록	28문항
4	음악치료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교과목(도움 되는/도움 되지 않는 과목, 개설희망 과목), 학회나 협회 활동에 대한 의견, 음악치료사가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 희망하는 대상군 및 기관	9문항
		합계	64문항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에 사용할 질문 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개 대학원의 음악치료학과를 선택하여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SS대학교, EH대학교, MJ대학교, SS대학교의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악치료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 강의가 끝난 후 설문지를 전달하고 조사 후 바로 수거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통계처리는 SPSS (PASW Statistics 18)를 사용하여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본 연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대상자는 100명이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성이 5%(5명), 여성이 95%(95명)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67%(6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9%(29명), 40대가 4%(4명)를 나

〈표 2〉 인구 통계학적 정보

정보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5	5
	여자	95	95
연령	20대	67	67
	30대	29	29
	40대	4	4
학기	1학기	7	7
	2학기	26	26
	3학기	18	18
	4학기	31	31
	인턴	18	18

타났다. 응답자의 현재 학기 분포를 살펴보면, 1학기 과정에 있는 학생이 7%(7명), 2학기 과정의 학생이 26%(26명), 3학기 과정의 학생이 18%(18명), 4학기 과정의 학생이 31%(31명), 인턴 과정의 학생이 18%(18명)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 단계는 학기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2.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특성

음악치료 대학원에 진학 전, 음악치료에 관한 강습이나 세미나, 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74%(74명)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6%(26명)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강습의 종류를 살펴보면, 음악치료 대학원 특강이 57.1%(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부 때 수업이나 세미나 참여가 16.8%(13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회의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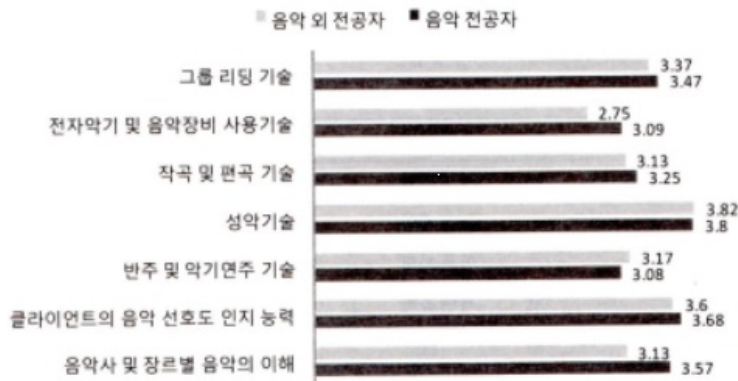
<표 3> 진학 전 정보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진학 전 참여한 음악치료 강습	음악치료 대학원 특강	44	57.1
	학부 때 수업이나 세미나	13	16.9
	학회 학술대회나 세미나	7	9.1
	사회, 평생교육원	7	9.1
	개인치료센터	2	2.6
	교사연수	2	2.6
	무응답	2	2.6
	합계	77	100
학부 전공	음악계열	51	51
	사회과학	15	15
	교육계열	10	10
	인문계열	5	5
	자연과학	5	5
	기타	13	13
	무응답	1	1
	합계	100	100

대회나 세미나 참여와,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과정 참여가 각각 9.0%(7명), 그리고 참여한 경험은 있으나 무응답이 2%, 개인 치료센터에서의 특강과 교사 연수 참여가 각각 2.5%(2명)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학부전공은 음악계열 전공자가 51%(51명)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계열이 15%(15명), 교육계열이 10%(10명), 인문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이 각각 5%(5명), 기타 경영, 법학과 등의 전공자가 13%(13명)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음악전공과 음악 외 전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음악전공자가 51%(51명), 음악 외 전공자가 49%(49명)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 보아,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학원 진학 전 음악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 치료가 어떤 학문인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치료에 관한 강습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고, 음악치료전공 내의 음악전공자와 음악 외 전공자의 비율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3. 음악기술영역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음악기술영역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조사한 결과, 성악기술의 점수가 평균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악기 및 음악장비 사용기술의 점수가 평균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악기술 영역 문항 중,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반주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평균 4.0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기존의 곡을 소규모 합창이나 기악합주곡 등으로 편곡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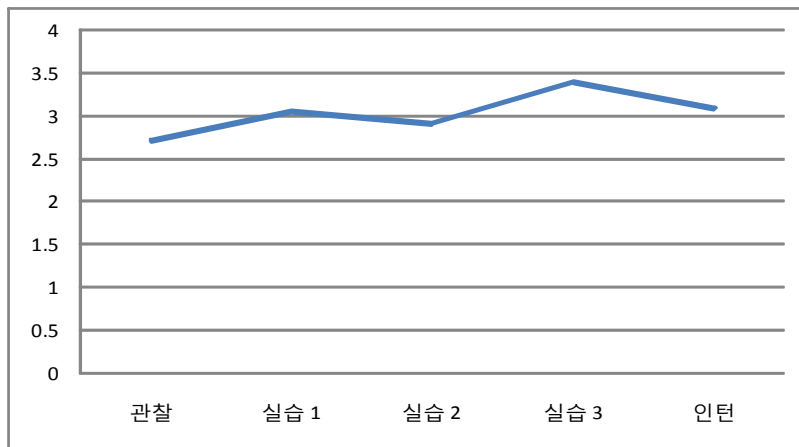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원 진학 전, 음악전공자와 음악 외 전공자의 평균 점수 비교

묻는 문항이 평균 2.8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부 전공이 음악전공인 대상자들과 음악 외 전공인 대상자들의 음악기술 영역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성악 기술, 반주 및 악기연주의 평균 점수는 음악 외 전공자들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5가지 영역은 음악 전공자들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음악 전공자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음악 외 전공자의 점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4. 치료기술영역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치료기술영역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조사한 결과, 치료계획의 점수가 평균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이해의 점수가 평균 2.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습단계별로 살펴 본 결과, 치료기술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가 3.42로 세 번째 실습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높았고, 인턴단계의 학생들이 3.1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첫 번째 실습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3.1, 두 번째 실습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3.0, 관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2.74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세 번째 실습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실습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치료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지만, 인턴기간에는 다양한 경험과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자신의 역량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2> 실습단계별, 치료기술 영역 평균 점수

5.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대상자들이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과목을 1위부터 3위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과목의 선택 빈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조사된 과목은 23.2%(57명)로 음악치료기술이었다. 그 뒤를 이어 즉흥연주가 12.2%(30명), 임상실습이 6.9%(17명), 음악과 인간행동이 6.5%(16명), 음악치료 세미나가 5.7%(14명)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과목이 음악치료 기술이고, 그 다음이 즉흥연주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이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과목을 1위부터 3위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과목의 선택 빈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조사된 과목은 각각 7%(7명)로 음악과 인간행동과 음악심리학 두 과목이었다. 이 문항은 29%(29명)의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보아, 수강한 과목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에게 현재 음악치료사가 되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을 4가지 영역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장 높게 나온 영역이 51.8%(59명)로 음악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이었고, 그 다음이 34.2%(39명)로 졸업 후 구직이었다. 앞으로의 전망이 10.5%(12명)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그 외의 다른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가 3.5%(4명)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실습단계별로 살펴 본 결과, 모든 단계의 학생들이 다수 응답한 것이 음악치료사로서의 전문성으로 나타났다.

<표 4> 현재 음악치료사가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졸업 후 구직	39	34.2
음악치료사로서의 전문성	59	51.8
앞으로의 전망	12	10.5
그 외	4	3.5
합계	114*	100

*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 중복하여 응답한 응답자가 있어 각각 나눠서 계수하여, 응답자의 정원이 100명이 아닌 114명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에게 현재 교과과정에는 없지만,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을 1위부터 3위 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과목의 선택 빈도를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조사된 과목은 19.7%(27명)로 상담 및 심리학 관련 과목이었다. 다음으로는 악기기술에 관한 과목이 16.1%(22명), 의학 분야 관련과목이 10.9%(15명)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개설 희망 과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상담 및 심리학 관련	27	19.7
악기기술 관련	22	16.1
의학 분야 관련	15	10.9
음악기술 관련	10	7.3
대상군별 음악치료 기법	9	6.6

대상자들의 졸업 후 희망하는 대상군에 대해 묻는 질문에 42.3%(44명)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18.3%(19명)로 노인이, 다음으로는 각각 9.6%(10명)로 정신질환자와 성인이 조사되었다. 졸업 후 음악치료사로 일하기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묻는 질문에 48.3%(28명)로 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7.2%(10명)로 학교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각각 8.6%(5명)로 복지관과 치료센터 순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살펴보면 첫째,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과목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과목이 음악치료기술로 분석되어, 음악치료기술에 대한 높은 필요성과 많은 욕구를 알 수 있다. 또한, 실습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인턴단계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학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과목이 음악치료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치료기술이 모든 학교에서 교수되는 공통적이고 중요한 과목임을 알게 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치료기술 영역에 대해 실습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세 번째 실습단계에 있

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관찰단계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실습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임상실습의 경험과 교육과정을 통해 치료기술에 대한 지식과 능숙도를 갖게 되었다고 인지하여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습 경험이 더 많은 인턴단계 학생들의 점수가 세 번째 실습단계에 있는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인턴십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한 기관에서 실습이 진행되는데, 인턴십 단계에서는 주당 10회 이상의 세션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본인의 부족한 지식과 능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낮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턴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안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대상군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 기관은 병원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들의 실습 대상군을 보면,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음악치료 경험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게 잘 알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고, 최근 증가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증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희망하는 기관은 병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 전문적 기관인 병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는 음악치료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음악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인 것과도 연관된다. 많은 임상을 경험한 인턴단계의 학생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과목 중 첫 번째가 임상실습이고, 두 번째가 신경재활 음악치료이다. 졸업을 앞두고, 음악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을 걱정하며, 병원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어 접근할 수 있는 신경재활 음악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음악치료 교육 효율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가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음악치료기술 과목의 학교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명의 과목이 모든 학교에서 교수되고 있으나, 공통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가장 필수적인 내용을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통일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학교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음악치료기술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교재 개발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인턴단계 학생들의 치료기술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하다. 수많은 의문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과정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기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 할 수 있는 교과목 혹은 슈퍼바이저와의 면담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실습 과정과 인턴십 과정의 양적, 질적 차이로 인하여 인턴과정에 대한 많은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적인 치료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현실에 맞게 실습단계별 실습내용의 변화가 융통성 있게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치료 임상 영역의 확장과 기법의 개발에 발맞추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교과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관인 병원에서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교과과정의 필요성들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으며, 의료 환경 내 음악치료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진단명 및 치료 과정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습 학기나 실습단계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학교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상실습과 달리 실제 임상에 나갔을 때 인지하는 교과과정의 인식도는 조금 다를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1-2년 경험을 쌓은 후, 교과과정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본다면, 보다 정확한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음악치료교육에 관해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4개의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현재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 가입된 음악치료학과의 수가 대학원 12개와 학부 2개(전국음악치료사협회, 2009)이므로, 다양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치료사 전문성의 고른 향상을 위해 학교 간 교과 과정의 차이점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음악치료교육이 약 12년 동안 진행되고,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재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음악치료사 양성을 위한 효율적 교과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임상에 임할 수 있는 음악치료사들의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노아 (2009). 음악심리치료가 학습부진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음악치료교육연구**, 6(2), 1-22.
- 고지윤 (2005). 사회복지기관의 음악치료 실태변화에 대한 연구(비교논문).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윤주 (2009).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1999). 음악치료에 대한 정신과 영역 전문인들의 인식도 조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 1-11.
- 김동민 (2003). 자폐성향을 가진 감각장애아동과의 음악치료. **자폐성장애연구**, 4(1), 121-132.
- 김윤겸 (근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 음악치료 현황. **재활복지**.
- 김정란 (2005).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음악치료교육연구**, 3(1), 1-11.
- 김현지 (2009). 음악치료 수요와 관련한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08). 음악치료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인식 조사-사회복지사와 음악치료사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10). 음악치료사의 전문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교육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화 (2010). 집단음악치료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2009). 장애아동의 그룹음악치료의 지속적인 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2), 66-85.
- 여정운 (2010).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개별 음악치료 사례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1), 16-40.
- 전국음악치료사협회 (2009). 협회 가입 학교 자료. 2010년 12월 14일 인용, <http://www.nakmt.or.kr>
- 전희란 (2009). 그룹 음악치료를 통한 과잉-분리가정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에 관한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6(2), 77-107.
- 정영주 (2001). 한국 음악치료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세진, 최신형, 남옥선 (2007).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중재 효과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1), 114-122.

- 최애나, 김명현, 최낙천 (2009). 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주의집중과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5(3), 17-40.
- 추주라 (2009).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음악치료 인식 비교분석: 사회복지기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관리자,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영희 (2001). 음악치료에 대한 비행청소년 및 관련 전문인들의 인식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 Chong, H. J. & Kim, S. J. (2010). Education-oriented music therapy as an after-school program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Arts in Psychotherapy*, 37(3), 190-196.
- de L'Etoile, S. (2000). The history o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in music therapy. *Journal of Music Therapy*, 37(1), 51-71.
- Knight, A. J. (2008). Music therapy internship supervisors and preinternship stud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questionnaires. *Journal of Music Therapy*, 45(1), 75-92.
- Lee, J. H. (2009). *A survey of music therapy students in the U.S: Musical background, academic interests, career aspiration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qualific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 Murphy, K. (2007). Experiential learning in music therapy: Faculty and student perspectives. *Qualitative Inquiries in Music Therapy*, 3(2), 31-61.
- Tanguay, C. L. (2008). Supervising music therapy interns: A survey of AMTA national roster internship directors. *Journal of Music Therapy*, 45(1), 52-74.

- 게재신청일: 2010. 10. 10.
- 수정투고일: 2010. 10. 20.
- 게재확정일: 2010. 11. 10.